



한국전력공사가 광주시 추천 후보지 3곳, 전남도 추천 후보지 3곳 등 6곳을 대상으로 한전 공대 후보지 평가를 진행중이다. 1단계 심사를 거쳐 양 시도에서 각각 1곳씩 예비후보지를 선정할 뒤 2단계 심사,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은 광주시 후보지 중 한 곳인 남구 압촌동 에너지밸리산단(왼쪽)과 전남도 후보지 중 한 곳인 나주 산포면 산제리 산림자원연구소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전공대 광주·전남 1곳씩 뽑아 최종 결정

부지 선정, 광주 산학연 연계성·전남 부지제공 조건 강점
우선협상대상 자격 한전과 최종 조율 ... 1·2순위 바뀔수도
28일 결과 발표 ... 결정 이후 문제·대책도 고민해야

한전공대(Kepco Tech)의 입지와 관련된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3곳씩 모두 6곳을 후보지로 신청한 가운데 산학연 연계·인프라 활용성·물리적 환경은 광주가, 부지제공 조건·접근성·인허가 용이성 등은 전남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이 부지 유지를 위한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이면서 한전공대 설립에 필요한 부지 비용 등을 결국 지자체가 떠안게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한전공대 부지와 관련 선정 결과에 승복하고, 기반시설을 지원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한전공대 부지 선정 결과는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장소 베트남 유력 ▶2면
아시아컵 중국전 이승우 카드 꺼낸다 ▶20면



광주일보 뉴스
NAVER
포스트에서 보세요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광주시는 공동으로 조성한 빛가람혁신도시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전남도의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표명한 바 있으며, 전남도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혁신도시 시즌 2' 성공을 위해서는 여전히 불안정한 혁신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한전공대가 나주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

다. 이 같은 인식의 차이는 혁신도시 시즌 2, 광주 군공항 이전 등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 현안은 물론 미래 발전 방안 구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양 시도가 부지 선정 뒤 벌어질 논란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공대 부지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는 1단계로 산학연 연계 등에 65점, 2단계로 경제성 등에 35점을 배정한 평가심사표를 마련해 제안서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1단계의 세부 분야별 점수는 ▲상위계

획 부합성(5점) ▲산학연 연계성(15점) 등 산학연 연계가 20점, ▲인프라 활용성(8점) ▲접근성(7점) 등 정주환경 및 접근성이 15점이다. 그리고 ▲물리적 환경(10점) ▲생태 환경 영향성(5점) ▲확장성(5점) 등 부지조건이 20점, 인허가 용이성(10점) 등이다.

한전은 1단계 심사를 거쳐 광주 지자체가 신청한 남구 압촌동 에너지밸리산단, 남구 승촌동 영산강문화관 수변공원, 북구 오룡동 첨단산단 3지구 등 광주지역 후보지 3곳과 나주 산포면 산제리 산림자원연구소 등 전남 후보지 3곳 가운데 1곳씩을 각각 추려낼 방침이다.

이들 2곳의 예비후보지에 대해서는 앞서 1단계와 함께 ▲부지조성 비용(7점) ▲부지제공 조건(13점) 등 경제성 20점과 ▲설립 지원계획(7점) ▲운영 지원계획(8점) 등 지자체 지원계획 15점 등 2단계(35점)까지 포함해 다시 심사를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1단계 평가에서는 산학연 연계성, 2단계 평가에서는 부지제공 조건의 점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광주와 전남 후보지가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비후보지 2곳에 대해서는 오는 22일부터 25일 사이 제안서 발표, 현장 점검 등 2박3일간 평가를 받게 된다. 이어 한전은 오는 28일 한전공대 부지를 확정 발표하며, 해당 지역이 포함된 지자체는 우

선협상대상자의 자격을 얻어 한전과 최종 협상에 나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1, 2순위 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는 사실상 한전공대 부지 확정의 주도권을 쥐게 된 한전이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 광주시나 전남도에 한전공대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공유 재산법상 광주시와 전남도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사립학교법상 대학 부지는 반드시 운영주체인 한전이 매입해야 한다.

한 전문가는 "한전공대 설립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전남도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지 선정 이후 광주시와 전남도 두 지역의 상생발전과 성장을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민주, 손금주·이용호 입·복당 불허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손금주·이용호 의원(무소속) 의원의 입당 및 복당을 불허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손 의원에 대한 입·복당 심사를 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냈다. 애초 민주당은 지난 9일 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입·복당 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 재논의했다. 중앙당 내부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는데다, 지역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윤호중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신정인들의 행적과 발언,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등을 면밀하게 살펴봤다"며 "신정인들이 우리당의 정강정책에 맞지 않는 활동을 다수 해왔다는 점이 확인되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서 타당 주요 직책의 간부로서 또 무소속의 신분으로서 우리 당 후보들의 낙선을 위해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위원장은 "지난 시기 활동에 대

해서 소명이 부족해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 의원이 우리당의 당원이 되기에 아직 충분한 준비가 돼있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며 "이에 따라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손금주 의원의 입당과 이용호 의원의 복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당내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무리하면서까지 두 의원의 입·복당을 허락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 분석이 나오고 있다. 두 의원이 가세하더라도 당장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불허 판단의 이유가 됐을 것이라 해석도 있다. 따라서 향후 정치적 상황을 바라며 또다시 이들의 입·복당을 재논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권오봉 여수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정중순 장흥군수, 박우량 신안군수의 복당을 심사한 결과, 박 군수의 복당만 허락하고 나머지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지지부진

5월 어머니회 국회 앞 농성

자유한국당이 8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요원들이 투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극우 인사인 지만원씨와 당시 진압부대(3공수여단) 지휘관 출신을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검토한 것과 관련 정치권은 물론 지역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방침이어서 4개월째 공전 중인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은 또다시 지연될 전망이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지만원씨와 진압부대 지휘관의 조사위원 검토 논란과 관련, 검증 절차였을 뿐이며 지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추가 응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검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들의 조사위원 추천은 김진태 의원 등 당내 친박 의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극우 냉전적 시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새로운 보수 가

치 정립을 추구하고 있다는 당 지도부가 태극기 부대 등 극우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자유한국당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며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분노하고 있다. 평화당 박지현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5·18 희생자와 광주시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시대의 역사를 외면하는 반역사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월 단체와 지역 민심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5월 어머니회가 지난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5월 단체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경원 대표 면담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탈북인사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만원씨에 의해 탈북광수(광주로 잠입한 북한 특수부대)로 지목된 탈북민들과 함께 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집단 고소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기업고객님을 위한 아모레퍼시픽 설날 선물세트

•3만원 이상



종합 6호
30,900원



종합 7호
35,900원



종합 8호
40,900원



러 함빛 토탈솔루션
36,900원



프레시팝 베이직세트
39,900원

•3만원 이하



종합 1호
9,900원



종합 2호
13,900원



종합 3호
16,900원



종합 4호
21,900원

기업고객님의 구매수량에 따른 할인혜택은 아래 영업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00개 이상 대량 구매고객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해주세요.

*매장별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 전 매장 담당에게 문의해주세요. 아모레퍼시픽 데일리뷰티 광주영업팀 : 062-231-1868(09:00~18:00) *본 카탈로그의 이미지는 연출컷으로 실제 이미지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